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눈으로 씹는 곶

아날로그를 지나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모 기업의 광고에 '디지털'을 '네지탈'로 이해하는 어른신이 중심인 광고가 인기의 한 가운데 있던 시절이 있었다. '네지탈'로 알려졌던 문명이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완전자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단점은 범람하는 수많은 '문자와 영상의 향연'을 눈으로 다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지식의 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과 뇌를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의 삶에서 인터넷, SNS와 같은 '소통의 네트워크'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혹여라도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급단현상으로 그들은 너무나 힘든 생활을 이어나간다. 심지어 아날로그 세대라는 60~70대 장년층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생활이 가져다 준 즐거움은 보편적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좋은 디지털 시절에 '무엇을 어떻게 읽고 시청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대중매체인 '신문, 잡지, 도서(e-book), TV, 유튜브, sns'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글과 영상이 양산되고 있다. '가짜뉴스'

로 대변되는 신문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다양한 시각의 글이 '가짜'와 '진짜'의 경계선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례는 일상이 되어 버렸다. 디지털 시대에 신체 중 가장 화려하기도 피곤하기도 한 것은 '눈'일 것이다. '눈'은 사물을 보고 인식해서 뇌에 저장하는 소중한 인체의 매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중요하다. 게다가 원치 않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고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일단 들어온 것은 '눈'이 담아두게 된다. 그래서 영상이든 문자든 사물이든 '눈'을 들어오는 것을 소화하려 보니 항상 피곤하다.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디지털 서핑 광활한 마당 곶뻥이는 농동자 하나들



박여범

웅북중학교 교감 · 시인 · 문학박사

블 커지면 하이에나 검은 눈 가득 채운 주문 클릭 그중에 최고는 달콤한 곶 단물 가득하고 생글생글 탱탱한 자음 모음 불길에 Song 페어리드 왁자지껄 눈으로 씹는 디지털 곶, 깜빡깜빡 빛나고 눈에 불을 켜고 단물 쪽쪽 빨며 오늘도 홀로 자작자작 씹는다 -박여범, '눈으로 씹는 곶'

위의 시처럼, 왜지탈 넓고 넓은 서핑 마당에는 수많은 곶뻥이는 하이에나 검은 눈에 주문은 밀려든다. 그중에 최고는 곶이라는 단물, 그 단물이 생글생글 탱탱한 인터넷 소풍의 참맛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풍경에서 익숙한 것은 필요 없는 물건도 쉽게 '눈에 담아' 구입하는 과소비가 일반적이다.

사설  
이제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한다

총선의 결과가 나왔다. 민심의 선택은 민주당이었다.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전북의 경우는 무소속 한 곳을 빼고는 민주당 일색이었다.글자 그대로 압승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2위와 아주 큰 격차로 이겼으니 민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북의 경우 민생당의 현역의원들이 애를 썼지만 모두가 전멸되었다. 이는 도민들의 흥중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 선량이라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총선 이전의 평상심으로 돌아가 지역 발전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전북 발전을 그 무엇보다도 최고 우선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증액된 예산 확보가 없다면 지역 발전 계획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용하다. 아무리 거창하게 계획을 공표했다해도 그렇다. 그래서 여기 거듭해서 할 말이 있다. 지역발전을 약속하던 프로젝트 사업들을 행여야겠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그뿐이라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분할해야 한다.예산 증액을 위한 행보를 요구하기엔 때가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발전 청사진 공표에 걸맞게 예산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지금의 이 시점에서 프로젝트 사업 발굴에 대해 질의를 바가 있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지역의 발전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게 그동안 부족했기에 하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기거나 전북도는 더욱 분할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제 핑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도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증액될 테지만 소폭 증액은 의미가 없다. 물가 인상을 반영하는 정도의 증액으로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추진이 되어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야만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북도는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지역의 낙후를 떨쳐 버리려면 각각의 사업들을 본연의 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청년 취업의 봄날 언제 오는가

청년 취업의 봄날은 언제 오는가 라고 물어보고 싶은 나날이다. 전국적으로 청년 취업률이 약간 올랐지만 우리 전북 지역은 전혀 아니다.

지번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바 그대로 지금도 전국 17개 광역 시도들 중에서 16위를 기록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전북도는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므로 반드시 그래야 한다.

취업을 보고와 관련해 여기 할 말이 있다. 전북도가 때때로 보고하는 내용이 애매하다. 서울 쪽 언론사에서 내놓은 보도를 비교해보면 서로 안맞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 또 당부한다. 무슨 보고이든 있는 그대로 정직해야 한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호도하려고 해서 안된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청년 취업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취업률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성적표를 언제까지 들고 있을 것인가.

전북도는 미취업 젊은이들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젊은이들의 고통을 제대로 보아야겠다.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취업 열기를 더 달구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물론 도내 모든 공공기관들도 지역 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거들 말하거나 청년 취업문제는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한 두 번 해결을 모색해보고 손을 놓을 것도 아니다.

전북도는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해 좋은 사례를 많이 보여주어야겠다. 취업 실적이 낮음에도 괜찮은 것처럼 넘어가려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능력 발휘가 관건이다. 청년 취업의 봄날이 빨리 와야 하는데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취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 전북도 관계자들은 지혜를 모아야겠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극장에서 마스크 만드는 이란 자원봉사자들



15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하퍼즈 극장 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조형물 만든 독일 예술가



15일(현지시간) 독일의 한 예술가가 도르트문트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조형물을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